교육청, 학생 '통일 리더십' 키운다

광주, 남북교육교류기획단 출범·교육기금 편딩 추진
전남, 율곡통일리더스쿨·10월 국토대장정 등 다채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4·27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소년 교류사업, 학생 통일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기획단 출범을 서두르고 있고,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학생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시교육청, 남북교류기획단 띄운다= 지난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5월 초 양정기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을 기획단장으로 한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출범시킨다. 지난 18일 시교육청 김재황 장학사와 지역 내 통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으로 꾸려진 TF성격의 조직을, 성공적인 남북정상화담을 계기로 20명 안팎의 규모로 키우기로 한 것이다. 기획단은 시교육청이 지난 25일 정부에 보낸 '남북학생 교류사업' 제안서에 담긴 사업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다.

광주 학생 수학여행단 방북 등 남북 학생교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에 북한 학생대표단 초청 ▲시·도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원 학술 교류 및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기획단은 오는 3일부터 기존 남북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 분석에 들어간다. 남북학생 교류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힘들 경우를 고려해 편딩을 통한 자금 조성에도 나선다. 이른바 '남북교육기금 조성'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6월 공청회를 열고 남북교육교류 등을 담은 기존 조례(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4·27판문점에 관한 계기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초·중·고 모두에서 2시간 이상 필수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율곡통일리더스쿨'도 탄력= 전남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율곡통일리더스쿨'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심과 함께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미래의 통일한반도 리더가 지녀야 할 올바른 통일관, 따뜻한 리더십, 토론역량 등을 위해 특화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전남지역 초등학생 120명은 지난 3월말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제2회 율곡통일리더스쿨에 입학식을 열고 1년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올 한해 담임교사와 온·오프라인에서 미래 시대 통일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캠프와 독서토론 활동 등을 한다.

10월에는 7박 8일 동안 1500리 국토대장정 통일 체험을 한다. '1500리 국토통일대장정'은 최전방까지 통일열차를 타고 가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독서토론 활동을 가리킨다. 강릉에서 3박 4일 병영체험도 하고 금강산이 보이는 비무장지대(DMZ)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와 어머니 신사임당의 정신을 기리는 오죽헌 탐방,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1박 2일 국회의사 체험활동, 통일전망대 견학도 계획 중이다.

전남도교육청 허성균 교육과정 과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율곡통일리더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올 가을 강원도를 목적지로 한 통일 열차의 목적지를 평양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학생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통법규 위반, 드론이 지켜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제5지구대)원들이 지난 30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부터 논산분기점까지 103km구간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드론이 30m 상공에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암행순찰차에 자료를 전송하면 순찰차가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지정차로위반 등 113건을 단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42 해짐 19:18 달뜸 20:27 달짐 06:37

이른더위 식히는 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 흐려져 비	17/24	보 성	차차 흐려져 비	15/19
목 포	차차 흐려져 비	16/21	순 천	차차 흐려져 비	16/20
여 수	차차 흐려져 비	16/19	영 광	차차 흐려져 비	15/23
나 주	차차 흐려져 비	15/22	진 도	차차 흐려져 비	15/21
완 도	차차 흐려져 비	15/19	전 주	흐림	16/26
구 례	차차 흐려져 비	14/22	군 산	흐림	16/24
강 진	차차 흐려져 비	16/20	남 원	차차 흐려져 비	15/23
해 남	차차 흐려져 비	15/20	흑산도	차차 흐려져 비	13/18
장 성	차차 흐려져 비	15/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
	먼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동)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먼바다(서)	남동~남	1.0~1.5	남동~남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14	03:06
	20:22	15:11
여수	03:45	09:51
	15:46	22:20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18/22	11/18	10/23	11/25	11/25	14/22	15/23

선생님 되기 더 어려워진다

2030년까지 선발 단계적 감축…올 초등교원 3940명 선발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기로 했다.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뽑았는데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100~3500명으로 줄인다. 2018학년도보다 14~24% 가량 적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의 안정적인 진학·취업 준비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선발 인원을 소폭만 줄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멸종위기종 '삵' 진도서 포착

다도해국립공원 무인카메라에 낮 활동모습 찍혀

진도에서 삵(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사진)이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동안 로드킬 사체, 배설물 등으로 미뤄 진도에 삵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됐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1981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진도에서 삵이 포착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삵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정보 정밀조사 과정 중 무인센서카메라에 의해 찍혔다. 카메라에 포착된 시점은 지난 16일 오후 4시께로 야행성인 삵이 낮에도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너구리와 같은 서식공간에서 경쟁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번 영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정보를 구축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삵은 몸길이 50~58㎝이며, 꼬리는 23~44㎝로 비교적 길다. 평균 몸무게는 3~5㎏다. 몸과 꼬리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앞이마에서 목 뒤까지 세로 방향으로 4개의 검은 줄무늬가 있어 고양이와 구별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불과 110년 전만해도 진도에 호랑이가 서식했으며, 호랑이가 없는 지금은 멸종위기종인 삵이 최상위 포식자로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4년제 대학 年평균 등록금 671만원

지난해와 비슷…의과대 963만원·예체능 779만원

올해 4년제 대학의 평균등록금이 67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 185곳의 등록금 현황과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해 지난 30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 학교의 2018학년도 명목등록금(고지서에 나온 금액)은 학생 1명당 평균 671만1800원이었다. 작년(668만6800원)보다 2만5000원(0.4%) 올랐다. 185곳 가운데 177개 학교(95.7%)가 등록금을 동결(165개교)하거나 인하(12개교)했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계열이 학생 1인당 962만97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예체능계열이 779만6400원, 공학계열 714만4900원으로 뒤를 이었고, 자연과학계열이 679만900원, 인문사회계열이 596만6500원 순이었다. /연합뉴스